막바지 피서 더위 잊은 물놀이

66주년 광복절이자 황금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나주 드들강변에서 행락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부실대학 거르는 '외국인 유학생 인증제' 도입

유학생 6천명 지역대학들 비상

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해 줄잡아 6000여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중인 광주·전남지역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과 인증제를 연계해 '하위 15%' 부실대학을 중점적으로 선별·관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내 대학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하반기에 도입키로 하고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부 부실대학이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마구잡이로 유치한 후 학사관리나 생활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인증위는 다음달 국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아 2단계로 나눠 평가·인증할 계획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1~3년으로 하되 연 1~2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해 기준 미달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교과부는 인증제를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부실대학은 인증제와 별도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가는 정부의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줄잡아 6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4년제와 전문대학에 재학중이지만, 이들이 한국어 활용능력이 떨어져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중도탈락자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2008 유학생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18개 대학 중 14개 대학에서 유학생들이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S대는 유학생 9명 전원이 탈락해 100%이탈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K대(19명· 59.4%), 또다른 K대(23명·54.8%), D대(28명·51.9%) 순이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N대가 유학생 25명 중 19명이 이탈해 비율이 76%로 가장 높았고, Y대(71명·35.7%), C대(52명·18.5%), 또 다른 C대(91명·17.5%)가 뒤를 이었다.

전남지역의 한 대학은 지난 2008년 이후 외국인 유학생 53명이 전원 중도 이탈하는 바람에 무려 2년 동안 신입생을 받지 못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2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입국에 필요한 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 제재조치를 내려서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평가제'의 여파가 지역 대학가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교육청, 행정직 6급 본청 전입 심사제 도입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6급)을 대상으로 본청 전입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1차로 3명을 선발해 9월1일자로 발령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50점)와 면접심사(50점)를 거쳐 전입 적임자를 선발한다. 서류평가 항목은 업무수행능력, 광주교육정책 이해도, 청렴도, 인품·인성, 조직기여도 등이다.

면접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응 능력, 예의·품행, 창의력 등을 평가한다. 시 교육청은 7급과 5급 등에도 전입심사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기자 penfo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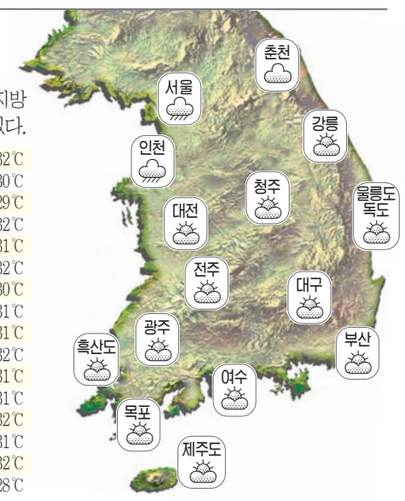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52분 해짐 19시 21분 / 달뜸 20시 18분 달짐 08시 01분

우산 챙기세요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내륙지방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4/32℃
목 포	구름많음	24/30℃
여 수	구름많음	25/29℃
나 주	구름많음	24/32℃
완 도	구름많음	24/31℃
구 례	구름많음	23/32℃
강 진	구름많음	24/30℃
해 남	구름많음	24/31℃
장 흥	구름많음	24/31℃
순 천	구름많음	24/32℃
영 광	구름많음	24/31℃
진 도	구름많음	24/31℃
전 주	구름많음	24/32℃
군 산	구름많음	24/31℃
남 원	구름많음	23/32℃
흑산도	구름많음	22/2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0~1.5m

	밀물	썰물
목포	03:44 15:52	08:53 21:00
여수	10:21 22:39	04:15 16: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 씨						
최저/최고	25/30	24/32	23/32	23/32	23/31	22/30

우유값 인상에 내년 학교 급식비 부담

현재 진행 중인 낙농농가와 우유업체의 인상협상으로 우유 값이 오르면 내년 학교 급식비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낙농농가와 우유업체가 우유 값 인상에 원천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그 인상분이 내년 학교 우유 급식가격에 반영돼 초·중·고의 급식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용 우유가격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우유 가격이 올라도 당장 다가오는 새 학기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3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1년 학교우유급식사업시행 지침'의 급식용 우유 가격은 330원(200㎖)으로 작년과 같다. 이 가격은 내년 2월까지 적용된다.

문제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 부담이 늘게 된다는 점이다. 우유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에서도 빠져있는 등 기본적으로 유상급식 품목이기 때문이다. 또 올해 식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해 내년 급식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광주 학생들의 한끼 급식 단가는 2497원으로 수치만으로 따진다면 우유값 330원이 급식비에 차지하는 비율은 13.2%에 달한다. 더구나 올해 중·고교에서 급식비를 올린 상태에서 내년에 또 다시 급식비가 오르게 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영기기자 penfoot@

북구 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광주시 북구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참여희망자 2075명 중 소득 및 재산조회 등 심사를 거쳐 167명을 선발해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4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